

지역 소식통

김제경찰서, 이륜차 집중단속 전개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5월1일부터 이륜차가 더 안전한 김제만들기를 위한 이륜차 교통법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 및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김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명중 3명(42.9%)이 이륜차 사망자로 매년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높은 기온과 농번기 이륜차 운행의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경찰서에서는 매일 이륜차 배달업체와 김제소재 이륜차 소유자 8,781명을 대상으로 사한문 전달 방문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이륜차 사고 예방 홍보영상(30초)을 자체 제작하여 김제 지평선시네마 등 7개소에 홍보영상(문자) 송출 등 이륜차 사고 위험감소 19개소에 대한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사고 예방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민체육공원 물놀이장 개장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시민문화체육공원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7월 1일 개장하여 8월 25일까지 55일간 운영 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14일까지는 주말(토·일)에만 운영하게 되고 7월15일부터 8월25일까지는 매일 오전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위해 휴장 하고 우천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시민문화체육공원내 물놀이장은 875㎡ 규모에 수심 30cm로 동시 수용인원은 70명 이며 벽천분수, 수조합물놀이대 1조, 놀이기구 7종과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그늘막을 설치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구급약품과 간단한 상비약을 비치해 놓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협,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시장 이건식) 여성단체협의회회 임의주 회장과 회원 70여 명은 29일 여수 디오센터포트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제시여협 산하 20개 단체의 임원과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여성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우의결집과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건강한 일상을 위한 바른자세 운동과 커피 카페티 클래스, 오동도 일대 명소탐방 등 현장 활동을 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성황

연일 수용인원 조기 마감된 정도... 거문고 산조연주 등 큰 인기 얻어

전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자 역사와 문화가 깃든 금산사가 다양한 문화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금산사측에 따르면 2017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금산사에서 나를 깨치다'의 경우 매일 마지막 주 수·목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100여명을 모집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29일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는 작년 400여명의 국악인이 참여한 해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인 대동령상을 수상한 거문고의 명인 권민정씨를 초청, 정통 거문고산조연주로 100여명의 체험객 및 사찰관계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미술사학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조정욱 미술사가 '옛그림에서 나를 찾다'라는 토크콘서트로 일상에 지친사람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었다.

이번 아니라 7월 이후 섬진강 시인 김용택시인과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

시인인 정호승시인을 초청, 토크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어서 인문학적 교양을 살찌우며 삶의 지혜를 깨치우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참여인원이 연일 만석이 되어 신청을 더 이상 못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김제시의 전통산사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관광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며, 향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문화재 활용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야생진드기 선제적 예방대책 펼쳐

진드기 제거용 에어건 보급·방역소독 진행

전북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사망자가 발생, 감염병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선제적 예방대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미 지난해 해충유인 퇴치기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진드기 에어건까지 설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완주군이 설치한 해충유인 퇴치기는 178대로 주요 교차로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공원, 시장 등에 시설을 완료했다.

이들 해충유인 퇴치기는 각종 감염

병의 매개 역할을 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퇴치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올해는 밤 빠르게 진드기 제거용 에어건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 마을회관 앞에 총 10개소를 목포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논밭 작업 후 귀가할 때 진드기 제거용 에어건으로 진드기를 때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방역소독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각 읍면과 보건소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상시 출동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공중화장실, 침수 예상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 발생자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지수 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안전한 삶 제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환자는 32명이고, 이중 8명이 사망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자매결연 참가국 응원 방문

김제시는 29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 중인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매결연 참가국 스페인, 이탈리아 선수단을 응원 방문하여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김제시 응원단 50여명은 자매결연 참가국 선수단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띤 응원을 펼쳤다.

또한 각국 선수단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재인 김제지평선축제 브로셔를 나눠주며 김제시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국 중 스페인,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과 음·면·동사무소 19개부서가 자매결연을 맺고 대회기간 동안 자매결연



참가국 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해 열띤 응원을 펼치며 선수단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함께한 시간 소중히 간직”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 이임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지난 1년 6개월간 김제시의 귀한 인연, 소중한 만남을 뒤로하고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지난해 1월 1일자로 부임한 이 부시장은 "김제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질주하여 시정발전이 많은 성과를 낸 참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김제는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새만금행복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온화한 성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재임기간 청원과 시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이승복 부시장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열정과 패기 투유했던 판단력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취임 직후 찾아온 용지 구지역 발생, 15년만의 폭설과 한파, 특히 작년 연말 지역 재난상황인 A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진두지휘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여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서남권 추도공원의 4개 시·군 공동협약체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 정부 중점시책을 견인해 나가며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백구특장차전전문단지 준공 등 주요 시정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특히 38년간 쌓아온 공직생활 노하우와 반박자 빠른 현장 대응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결과 지평선축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2016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 정부합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대상 그리고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재임기간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있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극복해 낼 수 있었다"며 "김제와 함께 했던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1979년 11월 1일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후 군산시 건축과장, 전라북도 토지주택과장과 규제개혁추진담당,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선정

완주군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됐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방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징수율 신장, 세수 신장률 등 6개 지표 중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완주군은 올해 588억 원을 부과, 564억 원을 징수해 95.9%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상반기에 16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성과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징수 실적을 높이는 체계적 체납관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까지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으며, 군·읍면 합동 징수 전담반을 운영했다. 또 '별동기동대'의 변호관 영치 예고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높은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Im-s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cheese factory in a valley.